

국힘, 당대표 선출에 '민심 반영'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방식 포함기로... 의견 수렴 거쳐 전대 룰 개정 반영 비율 20~50% 놓고 의원 설문... 영남권·친윤계, 부정적 의견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뽑을 때 당원투표로만 선출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민심을 반영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방식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 비율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전당대회 룰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장은 지난 5일 당사에서 열린 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원투표 100%가 잘못됐다는 것에는 의견 일치가 됐다"면서 "(여론조사)비율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민심 반영 비율을 놓고 20~30% 또는 50%로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은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여론의 난맥상이 4월 총선 패배를 초래했다며 여론조사 비중을

다폭 높이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심 100%로만 (당 대표를) 결정하던 것을 갑자기 확 변경하는 것은 보수정당 정체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고 여위원장은 전했다. 특위는 오는 7월 3차 회의에서 의원 설문 결과를 보고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는 현행 당심 100% 유지와 당심 대민심 반영 비율 80:20, 75:25, 70:30, 50:50 등 다섯 가지 안을 두고 이날까지 이틀 간 의원 설문을 진행 중이다. 여 위원장은 "현역 의원들은 (민심 비율) 30%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다"라고도 전했다. 현행 '당심 100%'는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

두고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밀어붙인 경선 룰로, 이 규정에 따라 김기현 의원이 당시 대표로 선출됐다.

그간 당내에서는 총선 참패를 계기로 당 대표 경선에서 '당심'과 '당심'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 의원과 낙선자들, 일부 잠재적 당권 주자들은 민심 반영에 긍정적이다. 반면,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과 친윤계에선 거부감도 표출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대를 앞두고 이런 룰 변경 논의가 특정인의 낙선 또는 당선을 위한 정치작업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견제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있다.

특위가 마련할 개정안은 오는 13일 비대위를 거쳐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 다음 달 23~25일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전당대회부터 적용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야 "엑스포 악몽" vs 여 "산유국 기대 찬물"

'영일만 석유 시추' 발표 공방...민주 "국회 차원 철저히 점검"

여야는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최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산유국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자원 개발 사기극'을 연상시킨다며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가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일에 연일 '뺑뺑' 통박정적 시종', '탄핵만답이다', '산유국들이 비웃고 있다', '희망 시기' 등 막말을 퍼붓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힘을 신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밀 배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보야 할 부분"이라고 했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를 '밀 배진 독에 물 붓기'라 할 수 있나"라면서 "민주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오로지 실패만을 바라는 이들이 있다. 행여 성공하면 그 공이 윤석열 정부에 돌아갈까 걱정하며 흡집 내기에 열을 올리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경과 당리당략만을 위한

'저주의 곳판'을 벌일 때가 아니라 차분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산유국 진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주 석유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심해 탐사 사업에 대해 가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링크하고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 막판 대역전을 외치며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결국 국회를 절망시킨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성공확률 최대 20%, 심층광굴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 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투자자 대량 손실도 걱정"이라며 "잘되기를 바라지만 참으로 걱정이 많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준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자원개발 대국민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다"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 시추를 강행한다면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발표 이후 주식 시장이 출렁거렸다. 대통령으로서의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며 "대통령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 전환 정치쇼'에 국민이 희망의 빛바람을 할 풀"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광주 온 윤상현 '보수의 길'을 묻다

'호남이 보는 보수' 토론회

총선 참패 원인 등 진단

전대 출마 질문에 "때 아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이후 보수 진영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진보의 성지'로 불리는 호남에서 보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출구)은 지난 5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보의 성지, 호남이 보는 보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공성남 호남의길 시민연대 상임대표, 김은 22대 총선 국민의힘 광주 서구 후보, 이수봉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호남의 지지가 거의 없어서였다고 진단하고 국민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는 등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조정관 교수는 "보수 정당 개혁을 위해 시대정신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국민 통합적 비전과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며 "재정당 수준의 논의 확대를 각오하고 지식인·의원·지지자들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토론하고 전국적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한 확산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한편 호남에 명성을 갖춘 시민사회 조직을 구성하거나 지원해 보수 정당의 이념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출구)이 지난 5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보의 성지, 호남이 보는 보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었다. 그는 "지구당 활성화는 단계적으로 당원·지지자들의 플랫폼 역할, 중기적으로 2026 지방선거 준비, 장기적으로 2027 대선을 위한 조직 확충에 필요하다. 당세가 약한 호남지역에서는 필수"라며 "보수 이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호남에 '지역 민주주의연구소' 등 평판 있는 시민사회 조직을 만들거나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성남 상임대표 역시 "지구당 부활로 호남 사·도당의 울퉁한 리더를 선출해 민주당과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윤상현 의원은 "정치사의 중요

한 고비마다 호남의 용기와 결단이 있었다"며 "저는 두 번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수도권에서 내리 5선을 했다. 그 이유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출신 지역, 이념을 따지지 않고 인간성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협치의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등과 함께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 "지금은 총선에서 참패한 우리 당이 변화하고 혁신할 때지, 전당대회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며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황우여 '2인 체제 절충안' 반응은 썰렁~

국힘 단일-집단 지도체제 사이 묘수... '한동훈 견제' 논란에 떨떠름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와 수석최고위원을 동시 선출하는 '2인 지도체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지도체제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대표 부재 시 수석최고위원이 직을 승계해 당권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게 황 위원장의 논리다. '한동훈 대세론'에 잠식될 수 있는 전대 흥행을 고려한 구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의원들을 비롯해 지도부 내부에서도 이번 전대에서 지도체제 개편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권 유불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단한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을 활동 시한으로 지도체제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짧은 시간 내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 위원장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단일 지도체제로 지난 2년간 지도부가 6번 바뀌지 않았다.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2인 지도체제 등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 패배하자 집단체제를 단일체제로 바꿨다. 그러나 이

후로도 총선에서 연거푸 패하자 최근에는 수도권·원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과거 집단체제로 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에 현역 의원들은 애초 지도체제 개편 논의 자체에 반대 기류가 강하다.

황 위원장이 나름의 '절충형'으로 내놓은 게 2인 체제다. 지난주 의원총회를 통해 현행 단일체제 유지에 힘이 실린 상황에서도 당헌·당규 개정 논의와 원외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그러나 당내 전반적 기류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원들 의견도 정리됐고, 전대 준비도 촉박한데 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든다"라며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이런 당내 분위기가 속속 절충형 등 지도체제 변경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당내에서 그대로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해온 소장파 모임 첫 번째 역시 "절충형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잠재적 당권 주자들도 "특정인을 의식한 좌위적 구상"(윤상현),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다"(안철수), "붕괴야말로 당이 될 수 있다"(나경원) 등의 발언으로 일제히 경계심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플라자 최고화질

-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성 최고!
-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총장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특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정118 당사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임명
위 피고인은 당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를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년 5월 3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영기

지분, 물건 바로 삽니다
010-9552-7900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 매매
010-3605-500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양 안철수(생년월일 53.1030) 603호
- 피상속인 양 안철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승인을 광주시법원 2024년203호로 신청하여 2024년 5월 3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승주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난후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6월 7일
• 상속인 : 1.안용택(600109-1XXXXXX) 광주 서구 풍암1로 53, 103동 1004호 (중앙동, 현대·삼환아파트)
2.안호병(60527-1XXXXXX)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4(이) 이스타빌딩 3101호 (삼성동, 아이파크삼성동)
3.안철수(570504-2XXXXXX) 2.안철수(570504-2XXXXXX) 401동 305호 (역여동, 하이파크서티엄삼림마을4단지)

• 신고기간 : 2024. 6. 7. ~ 2024. 8. 17.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안용택의 주소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바닥 628㎡ 대형건물
역곡,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 78억
은행 36억5천, 보9억4천 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자본가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

당회사는 2024년 06월 04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500,000,000원의 자본금을 감소하여 자본금 150,000,000원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는 발행주식의 총수 50,000주 중 35,000주를 회양하는 주주로부터 1주당 금 10,000원에 매수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50,000주를 15,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주주권은 가지는 주주는 주주권을 당 회회에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7일
주식회사 도시건설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등수리 482-8
사내이사 이근영

72년을 밝혀온 호남인민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북구	• 통권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안 신 571-7698	• 오 치 266-7801
	• 통 권 433-1503	• 유 신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연 222-9054
	• 중 정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통 051-1833
	• 북 신 673-6836	• 송 화 675-6605
	• 진 흥 671-7276	
서구	• 광 권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흥 376-0511	• 통 연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안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